

# 정근식,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전국 교육감과 논의… 신중 검토”

(서울시교육감)

국정감사에서 AIDT 관련 질의 답변  
교육부·교육감들과 의견 나눌 것  
재정문제, 장애학생 사용 등 고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학년별로 순차 도입을 추진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 AIDT 전면 도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교육감은 후보 시절 ‘AIDT 유예’를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 후에는 초·중등 각 한 개 학년씩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다고 언급했다”라며 “입장이 바뀐 건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

이에 정 교육감은 “AIDT를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마침 내일 교육부에

서 AIDT 관련 설명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AIDT는 서울시교육청뿐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도 중요한 문제인데, 내달 중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전국 교육감들과도 의견을 나누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AIDT 시범 학교를 선정해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어려운 방법”이라고 일축했다.

정 교육감은 “교과서는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는 만큼, 일부 학교만 실험집단으로 뽑기에 반발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겠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장애학생의 AIDT 사용상 어려움이나 AIDT 재정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한강 보며 브런치… 한강다리 카페 새단장

24일부터 전망카페 4곳 운영

서울시가 한강대교 견우카페, 한남대교 새말카페, 양화대교 선유카페와 양화카페를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다.

서울시는 민간업체와 협력해 한강공원 내 전망카페를 리모델링해 오는 24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한강교량 전망카페 4개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민간위탁공모를 거쳐 ‘어반플랫폼’과 ‘카페 진정성’을 수탁기관으로 각각 선정했다.

어반플랫폼 ‘한강대교점’과 ‘한남대교점’은 도심 속 실내정원을 테마로 한

브런치 카페로 운영된다. 로컬농장에서 재배한 신선한 재료와 친환경 원칙을 바탕으로 한강 특화 브런치와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카페 진정성은 양화대교 위에서 시민들이 한강의 노을을 감상하면서 차와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가게 내부를 디자인했다. 양화대교 남단 상류의 양화카페는 ‘카페 진정성 양화대교 동편’으로, 하류의 선유카페는 ‘카페 진정성 양화대교 서편’으로 운영된다. 동편은 바리스타가 직접 차류를 블렌딩해주는 ‘티 하우스’로, 서편은 ‘커피 하우스’로 활용된다. /김현정 기자 hjk1@

## 서울시-구미시 동반자로… 우호교류 강화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 등 업무협약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시-구미시 우호교류 강화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와 구미시는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 ▲청년 지원정책 확산 ▲도시디자인 정책 교류 활성화 ▲지역 관광 교류사업 추진 ▲정원 문화 활성화 ▲우수 체육시설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도시는 구미시의 우수한 농·축산물 직거래를 늘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돕고, 서울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구입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내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직거래 장터’ 등에 구미 농가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지원 정책 확산에도 협력한다. 서울시대표 지역 상생 청년 정책사업인 ‘넥스트로컬’에 구미시가 합류하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에 수험생 소송 제기

일부 수험생·학부모, 무효소송  
시험문제 유출로 공정성 침해 주장  
연세대 “실수 있었지만 재시험 없어”

열흘 전 치러진 연세대학교 수시전형 논술시험에서 일부 문항이 시험 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공정성이 침해됐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공정성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수험생들이 결국 소송에 나서며 법원 판단에 따라 추후 입시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의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연세대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논술시험 무

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 전 가처분을 인용해 입시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의미다.

이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시험을 무효로 판단할 경우, 전체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인 오후 12시55분에 문제지를 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인지한 감독관이 배부 20여분 뒤에서야 문제지를 회수했지만,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문제지 등의 사진이 공유되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연세대는 해당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시험에 공정성이 훼손된 행위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연세대는 관리·감독상의 실수가 있었으나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객관적인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도 이번 문제 유출로 인한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아닌 대학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디지털 음악 특화 ‘청년취업사관학교’ 개관

노원구에 18번째 캠퍼스 열어

서울시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18번째 캠퍼스가 노원구 공릉동에 문을 열고, AI를 활용한 디지털 음악 창작과 에듀테크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청년취업사관학교 노원캠퍼스(동일로174길 27)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노원캠퍼스에는 AI를 활용한 디지털 음악 창작 과정과 교수 학습법, 스토

리보드 작성 등을 배울 수 있는 에듀테크 콘텐츠 기획 과정이 마련된다. 총 50명 규모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뮤직 크리에이터 과정’은 유명 프로듀서와 뮤지션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을 진행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 교육부터 멘토링, 취·창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이다. 맞춤형 취업 솔루션을 제공할 수료생 중 75%가 취·창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김현정 기자

## 파주시, 학생 통학용 수소버스 도입

파주 북부권 신규노선에 7대 배치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전국 최초로 운행 중인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수소버스 ‘파프리카’에 수소버스 7대가 신규 도입된다. 이번 도입은 금촌과 문산 지역을 포함한 신규 노선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파주시가 수소도시로 성장하

는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버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수소버스 1대는 1년간 운행할 경우 이산화탄소 72톤을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소나무 약 2천7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이번에 파주 북부권에 신규 배치되는 금촌(G노선)에 3대, 문산(M노선)에 4대의 수

소버스가 도입된다. 파프리카 통학수소버스의 신규 수소버스 도입은 올해 12월부터 시범 운행되며, 이를 통해 보완점을 파악한 후 내년 3월 새 학기에 맞춰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프리카 버스는 파주시가 경기북부 수소도시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부권 운송사업자 선정에 맞춰 학생들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10월 23일(수)  
음력 : 9월 21일

수도권 날씨

11 ~ 1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10/15

동두천 9/15

백령도 11/14

파주 9/15

가평 9/15

서울 11/16

양평 11/16

인천 11/15

수원 11/15

용인 11/15

평택 12/1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중국 인민대학동문기업가협회와 면담 /사진 뉴스

▲中연구팀 “50분 ‘뇌사’ 돼지 부활 실험에 성공”

▲독일 로스토크 해군사령부에 나토 전술사령부(CTF) 개설

▲대만 외교부 “대만해협, 중국의 내해 아닌 국제수역”



▲“美, 對중국 AI·반도체 투자 제한 조치 최종 검토 중”

▲우크라이나, 유엔 사무총장 브릭스 참석에 ‘분노’ /사진 뉴스